

유년부
약속

-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7월 교육 내용	04
● 7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7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7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7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7월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2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3
● 위드 포토	64
● 7월 추천도서	66
● 7월 위드스티커	67
● 7월 교육활동지	68

7월 교육내용

바울



암송 구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첫째주♥

“예수님을 만난
사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둘째주♥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사도행전 14장 15절)

*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셋째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한
바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넷째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행전 19장 11절)

*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다섯째주♥

“은혜 안에 있는
왕의 자녀”

여름성경학교 닫는 예배로 드립니다.

실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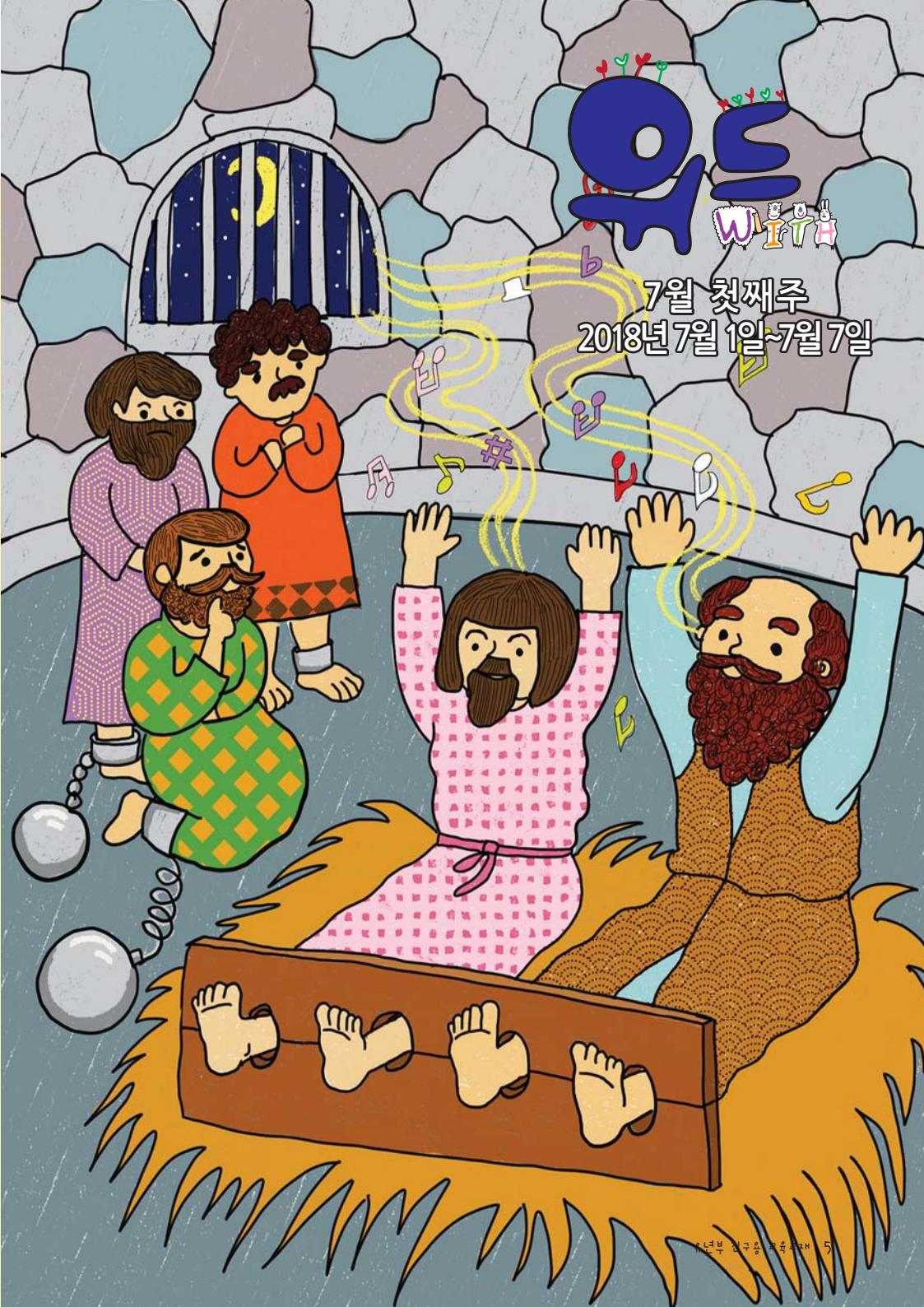
1.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는 바울과 같이,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해요.

2.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월

WITH

7월 첫째주
2018년 7월 1일~7월 7일



memory time



예수님을 만난
사울

첫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20

♥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을 만난 사울 ▷사도행전 9:1~22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사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3절)



②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10절)



★ 교육활동 - “사랑의 하트 접기”

준비물: 색종이, 필기도구

색종이로 하트를 접은 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친구의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함께 기도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i 카페

SWESTER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5

♥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을 만난 사울 ▶사도행전 9:1-22

사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 보이는 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팝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누구신지 묻자, “나는 네가 팝박하는 예수다.” (4-5절, 새번역)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이후 사울은 변화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못살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심지어 이전에 제일 싫어했던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처럼 사랑을 전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예수님을 만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나와 우리 가정을 이웃
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요.



Pray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아이야 12:1-6 “기뻐하며 찬양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 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3.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을 것이다.
4.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5.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6.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진노: 성을 내며 노여워함

만민: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시온: 예루살렘내의 남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



with
관찰

1. 말씀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2절)

…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하여 주시니,

주님께 드립니다. …”

2. 이사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 중에 틀린 것은?

- 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2절)
- ②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영혼, 나의 삶이시다. (2절)
- ③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4절)
- ④ 그가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4절)

with
생각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그 날”에 부르게 될 노래를 미리 부르고 있어요.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앗시리아에 의해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곧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된 “그 날”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드릴 거예요.

with
결심

원래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에 대해 기뻐하며 찬양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13:1-13 “바빌론에게 임한 심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다음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을 두고 받은 엄한 경고의 예언이다.
2. “너희는 **별거송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빌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3.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나의 분노를 원수들에게 쏟아 놓으려고,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나라들이 소리 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님께서,
5.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6.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7.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8.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 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별거송이: 별거벗은
알몸

파멸: 파괴되어 없어짐

간담: 간과 쓸개, 속마음

해산: 아이를 낳음



with
관찰

1. 이사야가 바빌론에 관해 밟은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2절)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들을 소집하여라.



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2.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크고 강한 나라였던 바빌론은 어떻게

된다고 하였나요? 말씀을 보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7~8절)

“사람들의 이 측 늘어지고, 이 녹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에 질릴 것이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하라”고 말이에요. 바빌론의 사람들은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을 대적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많은 나라의 군사를 불러 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날에 바빌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손이 측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거예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치고자 하셨던 바빌론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앗시리아가 약해진 이후에 강해진 나라였어요. 하지만 바빌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했고, 그 결과로 멸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잘된 일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주신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13:14-22 “바빌론에게 임한 심판(2)”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4.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노루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양 떼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 칠 것이다.
15. 그러나 눈에 띄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다.
16.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17. "내가 메대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메대 군인들은 온 땅에는 관심도 없고, 금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18.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쏘아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갓난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19.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론,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동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메어치다: 어깨 너머로
둘러메어 힘껏 내리치다

약탈: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

가엾이: 불쌍하고 딱하다

영예: 영광스러운 명예

**with
관찰**

1. 말씀에서는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씀을 보고 아래 빙칸을 채워주세요.(14절)

“바빌론에 사는 외국 사람들은 마치 쫓기는 와 같이,

모으는 이 없는 와 같이, 각기 제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제 나라로 도망 칠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다음 중 틀린 것은?

- ① 양 떼와 같이 제 나라로 도망갈 것이다. (14절)
- ② 눈에 띠는 자마다 모두 창에 찔릴 것이다. (15절)
- ③ 내가 수아 사람들을 불러 바빌론을 공격하게 하겠다. (17절)
- ④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것이다. (19절)

**with
생각**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크고 강한 나라였던 앗시리아가 망하였고, 바빌론 또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요.

**with
결심**

바빌론 사람들은 결국 양 떼와 같이 제 나라로 도망갔고, 눈에 띠는 자마다 창에 찔렸어요. 이 세상에는 바빌론과 같이 악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with
말씀

이사야 14:1-23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요”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때에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겨레**와 함께 살 것이다.
2.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3.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 주시고,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에,
4.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고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5.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6.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7.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겨레: 한 조상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들, 민족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억누르다: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다

고꾸라지다: 고부라져 쓰러지다



with
관찰

1.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절)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때에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와 함께 살 것이다.”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한 결과로 앗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서 고통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우리가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주셨듯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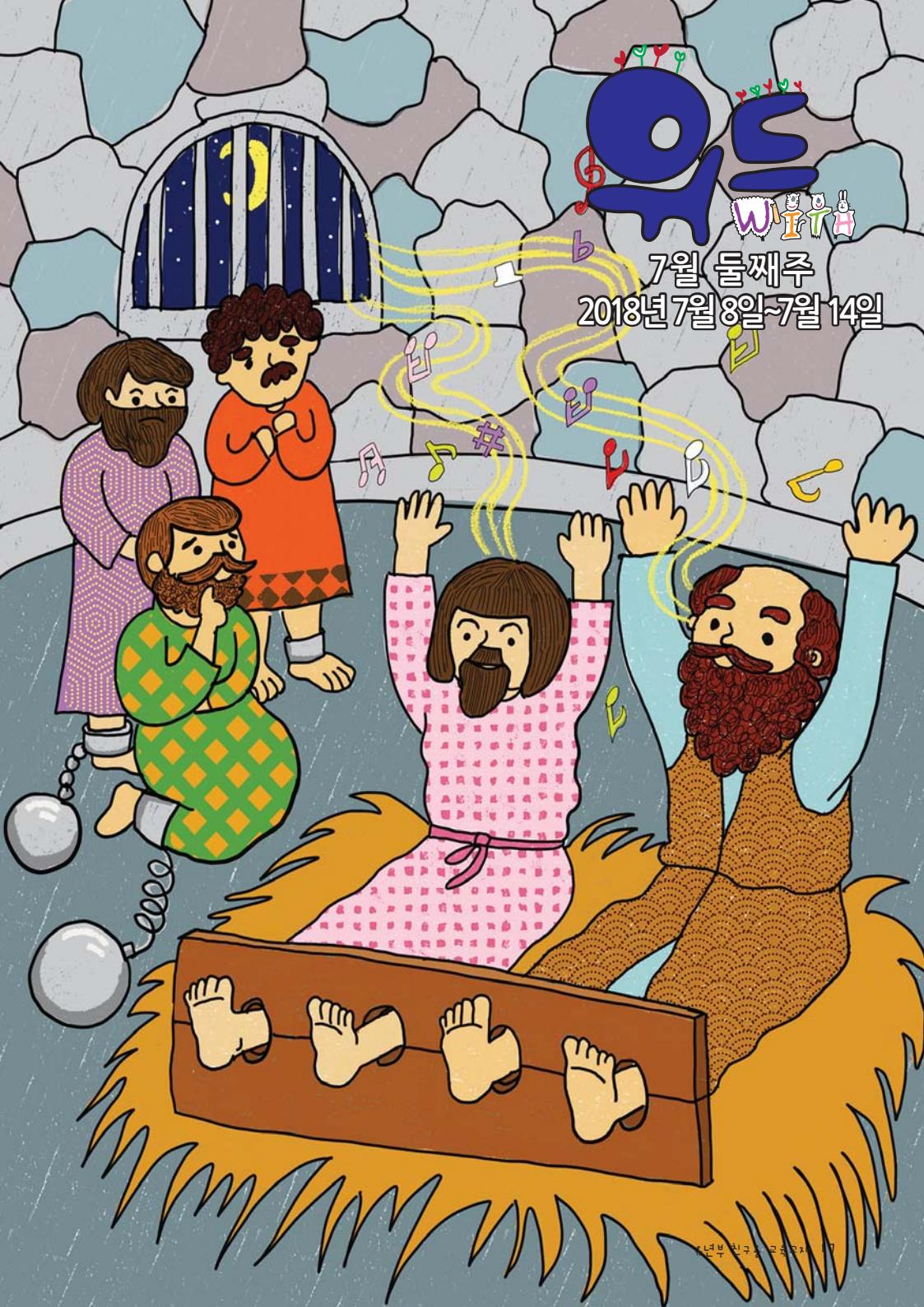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7월 둘째주

2018년 7월 8일~7월 14일



memory time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둘째주

- ♥ 주제 : 바울
- ♥ 암송구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혀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15
- ♥ 성경 이야기 :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사도행전 14:8~18
- ♥ 오늘의 포인트 :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 제우스 신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도시는 어디인가요? (8절)



- ②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무엇이라 말했나요?
말씀을 읽고 빈 칸을 채워보세요.(15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혀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 교육활동 -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준비물: 위드지, 필기도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우상’임을 배웠어요. 나의 마음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적어 보세요. 이제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i 카페

sweden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행전 14:15

♥ 오늘의 포인트 :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사도행전 14:8~18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중 루스 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들은 그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에게 치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당신 발로 똑바로 서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고,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다가왔어요. 루스드라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기적을 베푸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숭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하며 외쳤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바울은 자신들의 능력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는 헛된 것이며,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담대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혹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우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Q 1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으면 고백해 보세요.



Pray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14:24-32 “하나님의 계획”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4.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25. 내가 나의 땅에서 앗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 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명예를 내가 벗겨 주겠다." 그가 씩은 명예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26.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27.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28.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29.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30.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굽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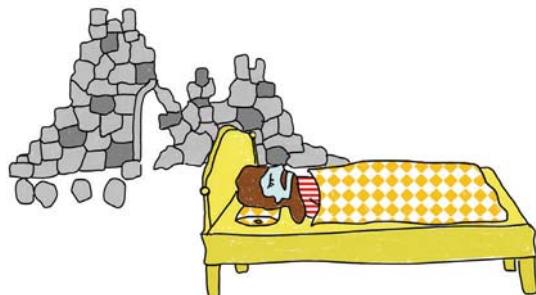
Q. 단어사전

만군:

많은 군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

명예 :

'행동에 구속을 받거나 무거운 짐을 짐'의 비유



1.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24절)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을 그대로

이루겠다.”

2. 하나님께서 앗시리아와 블레셋을 심판하신 말씀 중에서 틀린 것은?

- ① 내가 나의 땅에서 앗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겠다. (25절)
- ②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26절)
- ③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겠다. (30절)
- ④ 남은 자는 나의 팔을 펴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겠다. (30절)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빌론을 심판하시고 앗시리아와 블레셋 또한 심판하셨어요. 앗시리아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앗시리아와 블레셋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앗시리아와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괴롭히는 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계획도 항상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해요.

한줄 기도 :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15:1-9 “모압 심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2. 바잇과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3. 그들이 굵은 베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4.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5.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랏슬리시야까지 도망 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힛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6. 님드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7.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 놓은 것과 쌓아 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베 :

실·무명실·명주실 따위로 짠 피룩, ‘삼베’의 준말

가련하다 :

가엾고 불쌍하다

통곡 :

소리를 높여 슬피 울

초목 :

풀과 나무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에 대한 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민족에 대한 말씀인가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절)

“이것은 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이 망한다.”

2. 하나님께서 모압을 두고 내리신 심판의 말씀 중에서 틀린 것은?

- 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2절)
- ② 그들이 굵은 베로 하리를 동이고, 집 안에서 앉아 운다. (3절)
- ③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4절)
- ④ 그들이 남겨 놓은 것과 쌓아 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7절)

with
생각

모압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세운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형제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돈과 좋은 물건들을 좋아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압을 하룻밤에 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with
결심

모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혀서 망하고 말았어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재밌는 게임을 하고,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16:1-14 “하나님의 백성”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모압 백성이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리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2.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텔린 둑지에서 흘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3.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4.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5.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6. 유다 백성이 대답한다.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들이 매우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여 화를 잘 내지만, 사실 그들은 허풍뿐이라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다.'
7. 그러면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길하레셋에서 늘 먹던 건포도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조공:

종주국에게 속국이 때맞추어 예물을 바치던 일, 또는 그 예물

텔리다:

도둑이나 소매치기에게 재물을 모조리 뺏어버리다

애원:

소원이나 요구 등을 들어 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여 간절히 바람

피난민:

재난이나 전쟁 등을 피해 이동하는 사람

허풍:

너무 과장하여 믿음성이 적은 말이나 행동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멸망한 모압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1절)

“ 모압 백성아, [] [] [] [] 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 [] 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 []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2.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할 것이다. (3절)
- ② 유다 백성이 모압에게 보호하여 달라고 할 것이다. (4절)
- ③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5절)
- ④ 모압 백성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못 이겨서 통곡할 것이다. (7절)

with
생각

모압은 결국 앗시리아의 침공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사야는 모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말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with
결심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야 해요. 이사야는 모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망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잘못들 되풀이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17:1-14 “하나님을 바라봐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7.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8.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9. 그 날이 오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도망 친 히위 족과 아모리 족의 성읍들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 이스라엘아, 네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네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구나.
11. 나무를 심는 그 날로 네가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네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네가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어, 너의 슬픔이 클 것이다.
12. 가련하다! 저 많은 민족의 요란한 소리가 마치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소리 같구나.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제단:

제사(祭祀)를 지내는 단

황폐:

가꾸지 않고 버려 두어
거칠고 못 쓰게 됨

묘목:

옮겨 심기 위해 가꾼 어린
나무, 나무모, 모나무

흉작:

농작물의 수확이 평년작을
훨씬 밑도는 일, 또는 그런
농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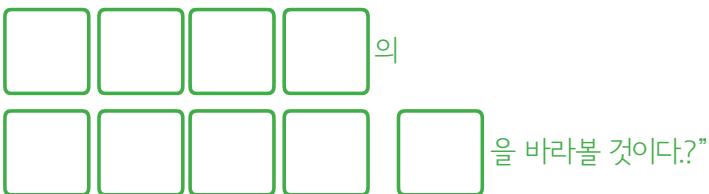
with
관찰

1.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 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8절)
 - ②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상들과 태양 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8절)
 - ③ 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된다. (9절)
 - ④ 마치 가나안 족과 브리스 족의 성읍들처럼 될 것이다. (9절)

2.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래 말씀의 빈칸을 채워주세요. (7절)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



with
생각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과 자기들이 세운 성을 의지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항상 생각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with
기독

한줄 기도 :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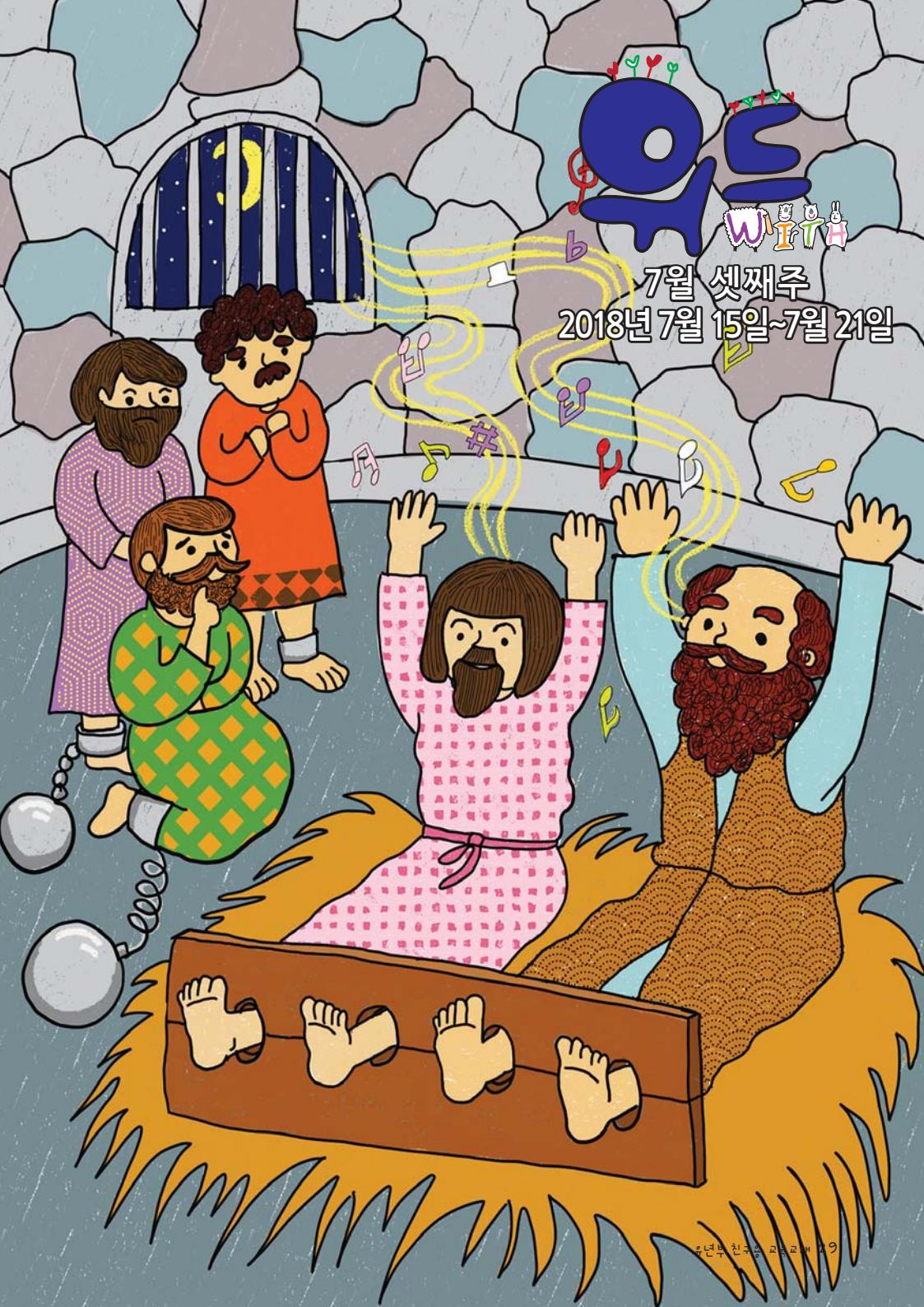


와이 WITH



7월 셋째주

2018년 7월 15일~7월 21일



Memory time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바울

셋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더라”

▷사도행전 16:25

♥ 성경 이야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한 바울 ▷사도행전 16:16~40

♥ 오늘의 포인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 말씀 나눔(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귀신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인가요? (19절)



②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한 밤중에 무엇을 했나요?(25절)

○○○하고 하나님을 ○○○했어요.

★ 교육활동 - “하나님을 찬양해요(마라카스 만들기)”

빈 물통 안에 콩이나 쌀을 넣고 마라카스를 만들어요.

함께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K's Time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25

♥ 오늘의 포인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한 바울 ▶사도행전 16:16~40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빌립보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여종과 마주쳤는데, 그 여자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 주는 점쟁이였어요. 그 여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하고 소리치며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그 여자가 며칠을 그렇게 하자, 바울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바울은 돌아어서 그 여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그 명령대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의 주인은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날 밤,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찬송 소리는 감옥에 있는 간수들과 죄수들의 귀에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그 때 난데 없이 큰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 놓은 것들도 다 풀렸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바울과 실라를 살려주신 것 이었지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면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Q 1 우리 가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요?



Pray 하나님! 우리 가족이 기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18:1-7 “하나님을 의지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2. 그들이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뱃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만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 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에게로 가거라.
3.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4.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 여름 폭염 속에서 뇌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5.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 포도가 영글 때에,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낫으로 자르시고, 뻗은 가지들을 찍어 버리실 것이다.
6.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들을 버려 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7. 그 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사절단:

사절로 외국에 가는 일단

만첩(하다):

재빠르고 날쌔다

영글(다):

과일이나 곡식따위가 알아 들어딴딴하게 잘 익다

with
관찰

1. 에디오피아 강 건너편에는 무엇이 닥칠 것이라 말하고 있나요? (1절)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이 닥칠 것이다.”

2. 오늘 본문에서, ‘그 때에 만군의 주님께 예물을 바칠 자들은 누구인가요? (5절)

“... 이 만군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곳 시온 산으로 올 것이다.”

with
생각

유다는 위쪽나라 앗수르의 공격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래쪽나라 구스의 군대들에게 의존하려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앗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의존하려 했던 구스에게 오히려 예물을 받게 해주리라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자들보다 강하고, 뛰어나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변상황으로부터 어쩔 줄 몰라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려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19:1-15 “무너지는 이집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2.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3.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기를 죽여 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4.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5. 나일 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6.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벼릴 것이다.
7. 나일 강 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폭군:

사납고 악한 임금



with
관찰

1. 오늘 본문은 어느 나라에게 경고한 이야기인가요? (1절)

“이것은 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2. ‘서로 맞서 싸우게 되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것은? (2절)

- ① 형제와 형제
- ② 이웃과 이웃
- ③ 성읍과 성읍
- ④ 왕권과 하나님

with
생각

오늘 등장한 이집트는 주변나라보다 돈, 힘, 화려한 우상 등 가진 게 많았어요. 유다는 이러한 이집트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유다는 이집트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이집트에겐 없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가 가진 수많은 것들과 비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가지려 노력했던 것들의 주인 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결국, 이집트는 하나님이 없어 멸망을 경고 받았고, 유다는 꾸준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이 감사하며 살아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될래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19:16-25 “경고의 참 의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6. 그 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인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17.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18. 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읍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19. 그 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20. 이 제단과 이 돌기둥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 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국경: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

징표: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with
관찰

1. 다음 중 이집트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마치 겁 많은 여인이 될 것이다. (16절)
- ② 유다 땅을 무서워 할 것이다. (17절)
- ③ 다섯 성읍은 만군의 주님을 절대 섬기지 않을 것이다. (18절)
- ④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18절)

2.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는 무엇인가요? (20절)

“스 쿠 와 쿠 그 쿠”

with
생각

이집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던 나라예요. 그러나 경고를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복시킬 마음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백성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따끔한 경고를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경고의 목소리를 항상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로 다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20:1-6 “끝까지 하나님 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앗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돗으로 와서, 아스돗을 점령하였다.
2.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3.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4. 앗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영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5.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6. 그 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앗시리아 왕에게서 구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징조:
미리 보이는 깜새

수치:

부끄러움



with
관찰

1.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벗으라 하신 것은 각각 무엇인가요? (2절)

- ① 마치 겁 많은 여인이 될 것이다.
- ② 유다 땅을 무서워 할 것이다.
- ③ 다섯 성읍은 만군의 주님을 절대 섬기지 않을 것이다.
- ④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2. 이사야가 삼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은 누구의 표징과 징조가 되었나요? (3절)

“  와      ”

with
생각

앗시리아로부터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은 애굽에게 의존하기 급급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이사야는 ‘애굽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해야 했어요. 자칫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게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유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었기에, 이사야는 당당히 선포했어요.

with
결심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도 이사야처럼 때론 고난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는 자가 될래요.
나의 기도 :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0절-



7월 넷째주
2018년 7월 22일~7월 28일

memory time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넷째주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행전 19:11

♥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사도행전 19:11-20

♥ 오늘의 포인트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 말씀 나눔(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누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나요? (11절)

②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불사른 책값은 계산하면 얼마나 되었나요? (19절)

★ 교육활동 - “나만의 능력액자 만들기”

액자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뽐내보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SI

Family Time



♥ 주제 : 바울

♥ 암송구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행전 19:11

♥ 오늘의 포인트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 ▶사도행전 19:11-20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마술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따라했어요.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바울을 따라했어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힘으로 눌러버렸고, 그들은 도망치고 말았어요.

바울이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에요. 마술사들과 같이 자기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요.

Q 1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해야 할까요?



Pray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21:1-10 “지금이 아니더라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 온다.
2.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에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3.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이기울 날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 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4.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5.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칫상을 차려 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6.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7.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나귀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광야 :
아득하게 너른 벌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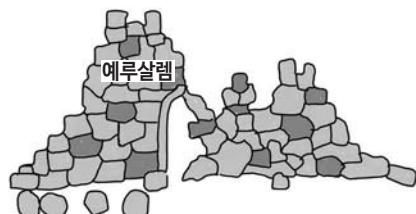
침략 :
침노해서 약탈함

횡포 :
제멋대로 굴며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난폭함

산모 :
해산한 지 며칠 안 되는 여자

기마병 :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

병거 :
전쟁에 쓰는 수레



with
관찰

1. 이사야 본 끔찍한 계시의 내용이 아닌 것은? (2절)
①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②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에워싸거라!
③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겠다!
④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소리를 더욱 심하게 하겠다!

2.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에 빙칸을 채워보세요. (6절)

“너는 가서 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하라고 하여라.”}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유다가 무서워했던 앗수르보다 힘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이후 바벨론은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숭배하여 정말로 멸망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보기에 마치 거짓말 같아요. ‘정말로 일어날 일일까?’ 믿어지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짜예요. 우리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또한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겠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21:11-17 “사라질 영광”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이것은 두마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12.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 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 보아라."
13.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14.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데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주어라.
15.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려하고, 화살이 그들을 훠뚫으려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므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16.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 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 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일 년을 센다. 일 년 만에 계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행상 :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

신세 :

한 사람의 처지나 형편

머슴 :

주로 농가에서 고용살이를 하는 남자



1. 세일에 있던 파수꾼의 대답에 대해 빈칸을 채워보세요. (12절)

“ 이 곧 온다.”

2. 피난민들에게 행해야 할 일에 대해 빈칸을 채워보세요. (14절)

“목마른 피난민들에게 을 주어라. 데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를
가져다주어라.”

오늘 본문에는 에돔과 아라비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돔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인간의 힘을 따라 갔어요. 아라비아는 돈을 모으며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이들은 모두 당장 앞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에 혹해서, 세상 어떤 것 보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힘을 키우거나,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좋은 선물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들을 사랑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사랑하기로 해요.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나 돈 등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사라질 영광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22:1-14 “사랑을 무시한 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2.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3.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 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 번 쏘아 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 데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 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4.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5.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헐리고, 살려 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6.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7.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폭동: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소동:

여럿이 법석을 땟

혼란: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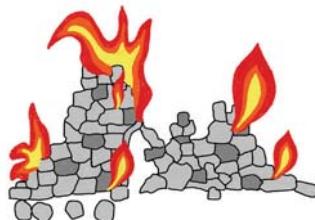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소란:

어수선하고 시끄러움

주둔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1. ‘환상 골짜기’가 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사람들이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2절)
- ② 사람들이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다 죽었기 때문에 (2절)
- ③ 지도자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기 바빴기 때문에 (3절)
- ④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4절)

2. 폭동과 소동의 ‘환상 골짜기’를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4절)

“그러므로 내가 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변의 나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것을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유다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말씀을 통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유다백성들을 결국 멸망시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사랑해주신다고 해서,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로 다짐해요.

한줄 기도 :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겠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22:15-25 “하나님이 주신 자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7. 그렇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세차게 내던지신다.
18. 너를 공처럼 둑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 버리신다. 네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네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의 상전의 집에 수치 거리가 될 것이다.
19.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20. 그 날이 오면,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21.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22.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23.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권세 :

권력과 세력

상전 :

예전에, 종에 대하여
그 주인을 이르던 말

영예 :

영광스러운 명예



1.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단단히 묶어 세차게 내던지는 자는 누구인가요? (17절)

“그렇다! 너는 가 있는 자다.”

2. 오늘 본문에서, 그 날에 관복과 띠를 입게 될 자는 누구인가요? (20절, 21절)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의 지도자를 꾸짖고 계세요. 왜일까요? 유다의 지도자 이름은 ‘셉나’였는데, 그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셉나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엘리아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듯 했으나 결국 그도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렸지요.

셉나와 엘리아김이 지도자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자리를 준비해주시고, 맡겨주셨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나의 자리와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memory time



나는 왕의 자녀예요

넷째주

♥ 주제 : 나는 왕의 자녀예요

♥ 암송구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앓고 입을 맞추니” ▷열왕기상 3:9

♥ 성경이야기 은혜 안에 있는 왕의 자녀 ▷누가복음 15:20~24

♥ 오늘의 포인트 확실한 은혜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여름성경학교 닫는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SIDE

farm



♥ 주제 : 나는 왕의 자녀예요

♥ 암송구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20

♥ 오늘의 포인트 확실한 은혜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은혜 안에 있는 왕의 자녀 ▶누가복음 15:20~24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요구하여 팔아 아버지를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그저 자신에게 유산을 줄 사람으로만 여겼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흉년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언제나 자신을 사랑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보게 되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몇 번이나 자신을 종으로 삼아 달라는 말을 연습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돌아간 아들은 놀랍게도 자신을 향해 기뻐하며 달려오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꾸중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향한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온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 주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세요.



Q 1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Pray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GOD'S TIME 1

with
말씀

이사야 23:1-9 “돈”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달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2.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 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3.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바로 실어 들었으니, 두로는 곧 뭇 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4. 그러나 너 시돈아, 너 바다의 요새야, 네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의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5. 두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 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6.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7.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 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파멸:

파괴되어 없어짐

수확: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임.
또는 거두어들인 농작물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두로의 이웃 나라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 ①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기뻐하여라. (1절)
- ② 시돈의 상인들아, 잠자하여라! (2절)
- ③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6절)
- ④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6절)

2. 이집트가 충격 받고 낙심할 소식은 무엇인가요? (5절)

“두로가 되었다는 소식”

with
생각

두로는 돈이 많은 나라였어요. 돈이 많으니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두로는 착각에 빠졌어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두로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돈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생명을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돈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돈이 만능이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진정한 만능이신 분이에요. 우리는 참 능력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 없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다섯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23:10-18 “영원함”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돈아, 너는 망했다. 네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앗시리아 사람이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 그 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칠십 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칠십 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네 노랫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 칠십 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 때에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황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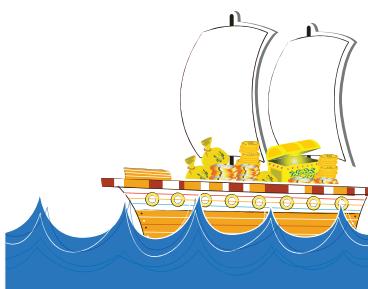
거칠고 피폐함

가련(하다) :

가엾고 불쌍하다

해상무역 :

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무역



1. <보기>에서 설명하는 땅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3절)

<보기>

“백성이 없어졌다. 앗시리아 사람이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헐어 황폐하게 하였다”

“ **ㅂ** **ㅂ** **ㄹ** **ㄴ** **ㅇ** ”

2. 칠십년이 지나면 있을 일과 관련해 이어질 내용을 채워보세요. (17절)

“주님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_____

그 때에 두로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_____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_____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쁘고 잘생긴 모습인가요? 돈인가요? 강력한 힘인가요? 높은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들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영원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이 뻗으시는 구원의 손길을 잡아야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이 가진 돈과 힘으로 영원히 살려다 오히려 심판과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들로 영원히 살겠다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기로 해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영원한 나라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기를 원해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24:1-13 “우리가 사는 땅”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흘으실 것이니,
2.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3.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4.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5.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7.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표면:

사물의 가장 바깥쪽. 또는
가장 윗부분

황무(하다):

논밭 따위를 거두지 않아
매우 거칠다

언약: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1. 주님께서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표면을 뒤엎으실 곳은 어디인가요? (1절)

“ **드** ”

2. 땅은 누구 때문에 더럽혀졌나요? (5절)

“땅이 때문에 더럽혀진다. 이 을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돌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땅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 잘 다스려지지 못한 땅도 심판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이 땅이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고 다짐해야 해요. 또한 나로 죄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며,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나로 인해 이 땅이 죽지 않고 아름답게 가꿔지도록 도와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다섯째주

날짜: 2018.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이사야 24:14-23 “하나님의 영광”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 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흥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 날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 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올가미 :

사람이 걸려들게 만든 수단이나 술책

토굴 : 땅굴

with
관찰

1. 오늘 본문에서, 땅의 모습이 아닌 것은?

- ① 땅의 기초가 튼튼하다. (18절)
- ②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진다. (19절)
- ③ 땅이 아주 갈라진다. (19절)
- ④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20절)

2.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와 아래로 벌하실 자들은 누구인가요? (21절)

“주님께서, 위로는 의 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의 을 벌하실 것이다.”

with
생각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이세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실 분이고, 만군의 주님이시자, 왕이세요.

with
결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달은 볼 낮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 즉 주님의 영광을 온 땅이 알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과 함께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잊지 않고 함께 찬양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시온의 영광이 빛남으로 이 땅을 밝히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의 기도 :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아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고 포근하게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주님 나는 만족 합니다_킹덤키즈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분만으로

주님 나는 온전합니다 주님께서 지신십자가로 인하여

주님 나는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만으로

주님 나는 온전합니다 날 향한 주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은 내게 말해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오직 그 사랑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다 하여서

오직 그 사랑 만족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OO(아)야, 잘 잤니?

오늘 찬양은 무언가에 대해 만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엇일까? 맞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을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랑은 대부분 우리가 잘나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나고 못난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 OO(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끝없는 사랑을 주고 계신단다. 어쩌면 우리 OO(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못 났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OO(이)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언제나 충분한 사람�이야. 사랑하는 OO(아)야, 우리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또한 OO(이)가 예수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자들로 살아가자.

가족과 함께하는



-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 자리에 누워서, 친구와 함께 아래의 시를 읽어주세요.
-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들꽃 향기_해밀 조미하

너는 들꽃을 닮았어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멋스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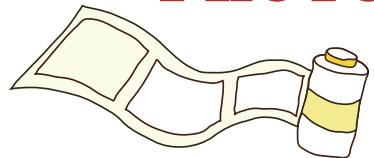
억지로 가꾼 인공미가 아니라
자유롭지만 절제미가 있는 들꽃

그런 네게선
들꽃 향기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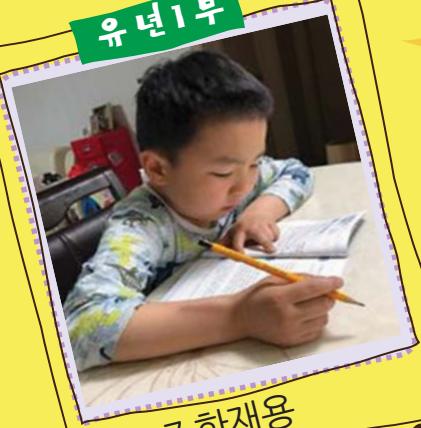
너만의 독특하고 좋은 향기

OO(아)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니? 우리 OO(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매일 많은 것을 체험하며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는 OO(이)가 나날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 정말 기뻐. 그러나 OO(아)야, 살아가면서 가끔은 우리 OO(이)가 가진 재능보다 남의 재능을 더 부러워할 때가 있을까 걱정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모습을 창피해할까 걱정돼. 사랑하는 OO(아)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만드실 때 너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을 준비해 두셨단다. 그래서 오늘의 시처럼, 남들과 같아지려 노력하기보다 네가 가진 자연스러운 모습을 찾아가기를 소망해. 우리 모두 OO(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신 너만의 독특하고 좋은 향기를,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게. 사랑해!

와드 PHOTO



유년 1부



1-7 한재용

유년 1부



2-1- 변연수

유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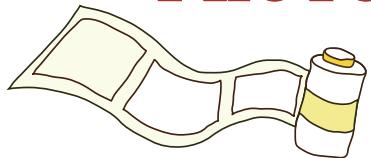
2-1 조민재

유년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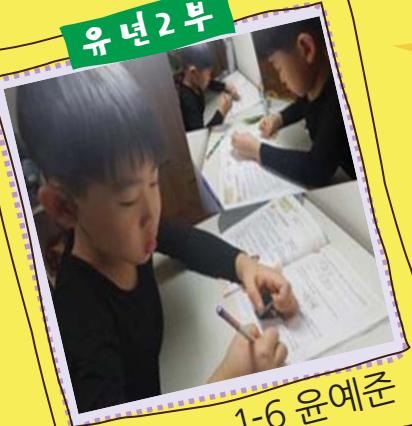


1-2- 손하늘

와드 PHOTO



유년 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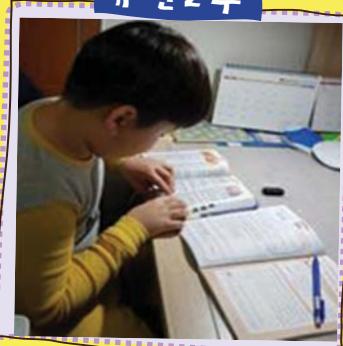
1-6 윤예준

유년 2부



1-15 박서윤

유년 2부



2-1- 양승현

유년 2부



2-4- 이지윤





추천도서



7월

제목 : 부끄러워도 괜찮아!

글 : 양승현 / 그림 : 주미

출판사 : 아이앤북



유난히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도 쑥스러워 하고, 낯선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은 아이의 성격일 수 있지만 심하게 부끄러움을 타는 것은 스스로 소심함을 느끼게 하고, 이는 곧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아』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를 소재로 한 동화로, 주인공 단비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만 밝고 활발한 친구 예진이를 만나면서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태도입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성격을 억지로 고치려 하기보다 아이의 기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아이는 엄마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속상하게 느끼며 더 위축될 수 있거든요.

부끄러워하는 아이에게는 무엇보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축된 아이에게 많이 칭찬하고 격려를 해준다면 아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아이에게 꾸준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려면 너 같은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단다.”

비록 지금은 부끄럼 잘 타는 연약한 아이일지라도 어린이의 참 친구되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일깨워 준다면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STICKER

유년()부, ()학년, ()반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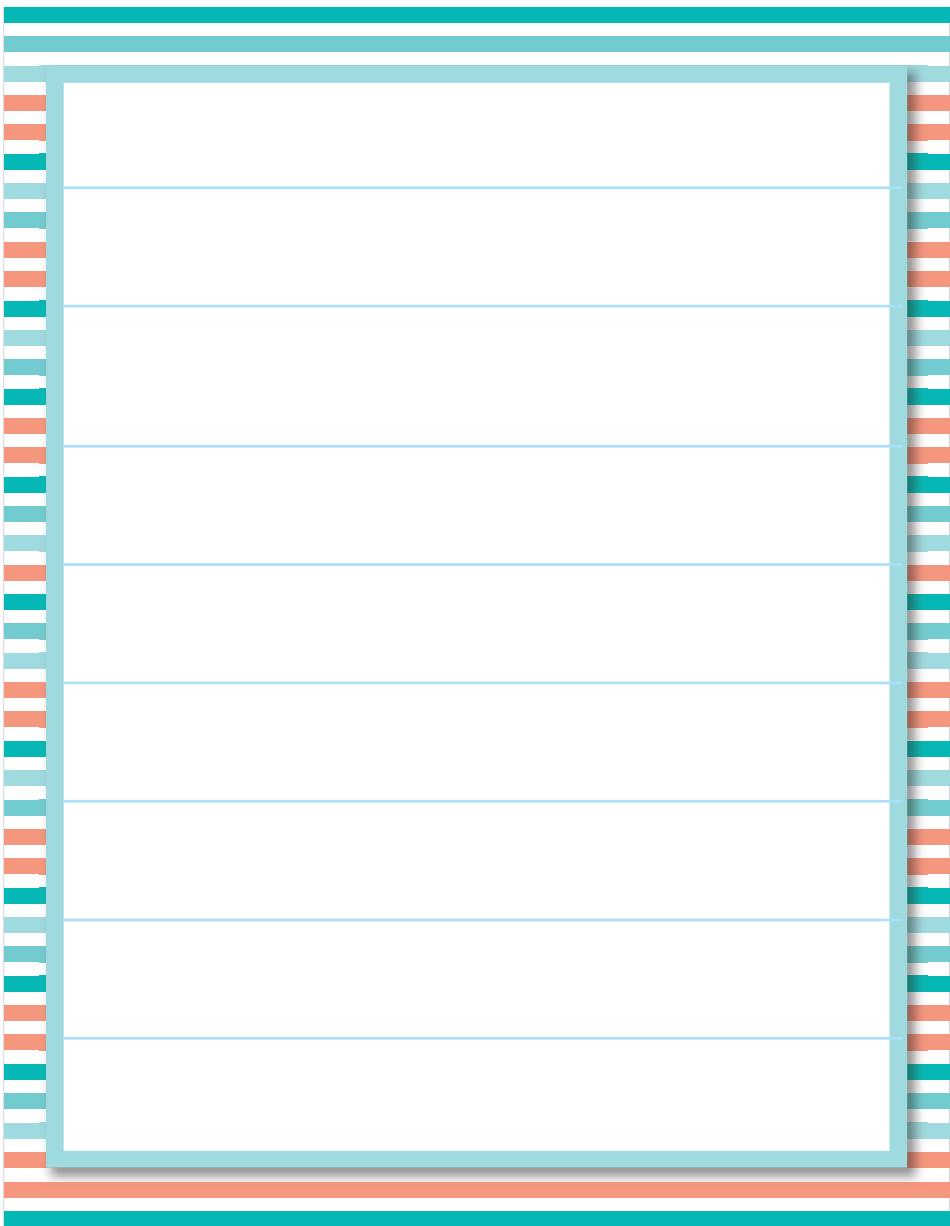
Bible study ! 7월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	●	●	●	●	●
2주	●	●	●	●	●	●
3주	●	●	●	●	●	●
4주	●	●	●	●	●	●
5주	●	●	●	●	●	●

7월 둘째 주(7/8)

-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



7월 넷째 주(7/29)

- 나만의 능력액자 만들기 -

